

#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11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238천 km <sup>2</sup>	G D P	1,597 억 달러(2009년)
인구	21.50 백만 명(2009년)	1 인 당 GDP	7,427 달러(2009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3.05(2009년)

- 루마니아는 2008년기준 1인당 GNI가 7,930달러\*로 세계은행 분류 상위 중소득국(UMIC)에 속하며, 인구규모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터키, 폴란드에 이어 3위 국가임.
- EBRD 체제전환 지표(민영화, 가격자유화, 무역시스템, 금융자유화 등) 기준에 의거, OECD에서는 2008년부터 시장경제 체제국(no longer in transition)으로 분류하고 있음.
- 2004년 NATO 가입 및 2007년 EU 가입 성공을 통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년 3월 IMF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였음.
- 2012년 ERM-II 도입 및 2014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경제개혁을 추진 중

\* Atlas Method(3년 평균환율 사용) 기준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4.2	7.9	6.2	7.1	-8.5
재정수지 / GDP	-0.8	-1.4	-3.1	-4.9	-7.3
소비자물가상승률	9.0	6.6	4.8	7.9	6.3

자료: IMF, EIU.

####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 2008년에는 전년도 가뭄의 해갈에 따른 농업생산량의 증가, 가계소비 및 고정투자의 증가로 1~3분기 경제성장률이 8.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동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주요 공산품(자동차, 금속제품)의 생산 감소 및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중 경제성장률은 7.1%를 기록<sup>1)</sup>
-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5%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동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신뢰 감소 및 임금수준 상승으로 투자유입액이 감소하고, 해외차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내신용시장의 추가적인 확장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고, 주요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로 수출 역시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경제성장률이 2009년 2분기에 -8.7%에서 3분기에 -7.1%로 다소 개선되고, 산업생산증가율<sup>2)</sup>도 10월 -2.7%를 기록하여 침체가 둔화되는 등 서유럽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이 지표상에 점차 나타나고 있음.

1) '08년 1~3분기 경제성장률은 8.8%, '08 4분기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

2) 산업생산증가율 : -12.5%('08.12월) → -16.4%('09.1월) → -2.7%('09.10월)

□ 2009년 상반기 유가하락 등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소폭 둔화

- 2007년 하반기 이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전화·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임금이 인상되어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sup>3)</sup>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7.9%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농작물의 양호한 작황, 상반기 원유가격의 하락 및 세계경기 침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년 시행된 담배세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과 신흥개발국가라는 특성 상 여타 EU 회원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형성한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임금인상 및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관리 어려움 예상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등으로 동 수치가 3.1%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선관련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4%를 초과
- 2009년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수당 지출 증가 및 세입 감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심화(교육근로자 50% 인상합의) 등으로 적자 규모가 GDP 대비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EU 및 IMF의 긴축재정정책 운영 권고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표출

- 루마니아는 주변국인 발트 3개국과는 달리 자국 통화가 유로화에 페그되어 있지 않아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남.

3)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6.3%('09) → 4.3%('10) → 3.3%('11)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8년 9월말 이후 레이화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2009년 2월에는 사상 최저인 달러당 3.4레이, 유로당 4.3레이까지 기록하였다가 동년 3월 IMF, EU 등의 금융지원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부터 시작된 정부부채 사태로 또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 2009년 말 기준으로 달러당 2.9레이, 유로당 4.2레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취약한 제조업 기반, 국내외 수요감소로 침체 심화

- 1990년대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간데 반해 루마니아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지속 및 제조업 기술력 육성 실패 등 구조조정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됨.
  - IMF 역시 루마니아의 경제구조 개혁이 정책 실패로 인해 여타 신규 EU 가입국에 비해 뒤쳐져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EU내 실질적인 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산업별 GDP 구성(2008): 서비스업 54.5%, 제조업 26.2%, 건설업 10.5%, 농림업 11.3%
- 특히, 루마니아 경제의 제조업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내소비 감소로 국내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sup>4)</sup>하였으며, 국내외 수요 감소로 인해 프랑스 르노사도 2008년 Dacia 소재 자동차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였음.
- 2009년 1~10월 중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산업생산 성장률은 11~12월 중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건설업은 10월 전년동기 대비 22.3%나 감소하는 등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생산 경기 회복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4) 전년동기 대비로 2008년 4분기 자동차 산업의 국내매출은 44.7% 감소, 수출은 20.9% 감소, 생산은 37.4% 감소함.

## 나. 성장잠재력

### □ 에너지 자급률 소폭 상승 예상

○ 천연가스·원유·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전기 순 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의 약 3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6년 12월 에너지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기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에너지 자급률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현재 원전은 총발전량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규 원전 건설 추진으로 원전의 에너지 공급비중이 2012년 25%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중 FDI 유입액은 90억 유로로 동 기간 경상수지 적자액의 54%를 보전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2009년 중 FDI 유입액은 감소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여, 적자의 81%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sup>5)</sup>

○ 2009년 1~9월 중 대 루마니아 FDI 유입액이 35억 유로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50%나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EU기금 유입확대로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0년 FDI 유입액은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다. 정책성과

### □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 경상수지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 대응에 실패한 결과 2008년 GDP 대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었음.

5) 연중 FDI 유입: 114억 달러('06) → 94억 달러('07) → 134억 달러('08) → 60억 달러('09)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였고, IMF 구제금융지원 조건 충족을 위해 재정지출 축소 정책을 시행하여 GDP 대비 적자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 2010년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지출 축소

- 루마니아 의회는 2010년 1월 15일 찬성 192표, 반대 138표로 2010년 예산안을 승인하였음. 동 예산안은 정부 수입이 GDP의 31.8%를 차지하는 1,660억 레이(580억 달러)가 되고, 지출이 GDP의 37.7%가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5.9%내로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0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공부문 종사자 130만 명에 대한 임금 동결 및 10만 명 해고, 인프라 투자 28%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 구제금융 합의

- 루마니아는 2009년 3월말 IMF 등과 200억 유로 구제금융지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에 이어 2008년 10월 이후 다섯 번째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동유럽 국가가 되었으며, 기관별 총지원금은 IMF 130억 유로, EU 50억 유로, 세계은행 10억~15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IMF로부터의 재정지출 축소요구 등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구제금융지원은 2009년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안정 및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2009년 10월 발생한 정부부채 사태로 동년 12월 중 예정되었던 25억 유로 규모의 지원이 중단되었음.
- 2009년 12월 23일 에밀 보크 총리의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부채 사태가 종결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의 2010년 예산안이 1월 15일 통과됨에 따라 2010년 2월 중 금융지원이 재개될 전망

#### □ 경기침체 대응 조치로 금리 인하 단행

- 2007년 10월 긴축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후 2008년 8월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IMF는 민간부문 외화 차입 증가로 인한 신용팽창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장기 경제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7.5%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6) 이러한 정책 단행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저하와 자국 통화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8,621	-12,785	-23,032	-24,685	8,833
경 상 수 지 / G D P	-8.7	-10.4	-13.9	-12.6	-5.5
상 품 수 지	-9,618	-14,836	-24,566	-27,095	-10,066
수 출	27,730	32,336	40,555	49,626	41,029
수 입	37,348	47,172	65,121	76,721	51,095
외 환 보 유 액	19,872	28,066	37,194	36,747	43,650
총 외 채 잔 액	39,077	55,114	76,300	97,807	113,793
총 외 채 잔액 / GDP	39.5	44.9	46.0	49.9	67.7
D. S. R	17.7	17.9	18.6	24.5	27.0

자료: OECD CRAM, EIU, IMF.

#### □ 2009년부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 발생으로 GDP 대비 12.6%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2009년에는 유럽 노동 시장 위축으로 인한 해외 근로자의 송금 감소가 경상수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제품 수출가격 상승효과 및 수입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적자 규모가 약 5.5%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 2009년 구제금융지원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 2009년 상반기 루마니아의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통화(Lei)가치 방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6) 기준금리 변화: 7.5%('07.11) → 10.25%('08.8) → 10.0%('09.2) → 7.5%('10.1)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09년 5월 구제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외환보유액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437억 달러로 2008년 말 대비 32.8% 증가하였고, 2009년 말 달러표시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8개월분으로 전년도의 4개월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Ⅲ. 정치 사회 동향

#### 1. 정치 안정

##### □ 정치성향이 대립적인 SDP-DLP가 연정 구성

- 2008년 12월 총선에서 비등한 득표율을 획득한 사회민주당(SDP, 좌파)<sup>7</sup>과 민주자유당(DLP, 중도우파)<sup>8</sup>이 연정 구성을 발표(12.14)하여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부가 탄생하였음.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사회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이 긴장관계로 돌아서던 중 에밀 보크 총리가 사민당 출신 단 니차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경질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정이 붕괴됨.

##### □ 민주자유당 정부, 불신임 가결 이후 HUDR과 새로운 연정 구성

- 야당은 민주자유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가결 시키는데 성공하여 정부가 퇴진(2009.10)하였으나, 2009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민주자유당 소속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이 동월 재차 보크 총리를 차기 정부의 총리로 지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민주자유당 정부가 재신임을 받게 됨.
- 새로운 정부는 2009년 12월 23일 민주헝가리연합(HUDR) 등 소수민족 대표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로 찬성 276, 반대 135, 기권 66표로 승인을 받았음. 동 연합정부 구성의 최대 수혜자는 부총리 및 3개 부처 장관직을 차지하게 된 민주헝가리연합으로 평가됨.

7) SDP는 농촌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저임금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관철시킨 전례가 있고, 여러 소속 인사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례가 있음.

8) DLP는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을 주장해왔고 비교적 부유한 도시지역에 주요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친 EU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민족적 갈등은 미미, 공공부문 노조의 불만 축적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갈등 요인이 없음.
- 2008년 들어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문의 3대 노조는 11월 초 단기 파업을 단행하였음. 또한, 2010년 예산안이 공공부문의 임금 및 인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3. 국제관계

### □ EU 및 NATO 회원국으로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2004년 5월 NATO 가입 및 2007년 1월 EU 가입으로 주요 외교정책 기조는 동 체제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내 압하지와 및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NATO 및 EU 차원의 대응에 동의함을 밝혔음.
- 인접국인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는 전통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몇 안 되는 코소보 독립선언('08.2) 미승인 국가임.

### □ 러시아, 몰도바와 긴장관계 고조

- 러시아와는 NATO 가입이후 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2005년 미국의 루마니아내 군사기지 건설 허용 및 바세스쿠 대통령의 러시아 에너지 안보 정책 비판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음.
- 몰도바와는 루마니아의 잦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양국간 관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몰도바는 1940년 루마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국가로 국민의 60%가 루마니아인으로 구성

□ 우크라이나와의 흑해지역 해양경계문제 관련 사법재판소 재판 승소

- 2009년 2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총 12,000km<sup>2</sup>에 달하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지역중 79%에 달하는 9,700km<sup>2</sup>에 지역에 대해 루마니아의 관할권역으로 판결함으로써 Serpent Island 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42년간 지속되던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임.
- 분쟁지역은 천연가스(최대 1,000억 m<sup>3</sup>) 및 원유(최대 1,200만 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0. 2)	C1 (2009. 4)
OECD	4등급 (2009. 4)	3등급 (2009. 1)
S&P	BB+ (2008.10)	BBB- (2005. 9)
Moody's	Baa3 (2006.10)	Ba1 (2005. 3)
Fitch	BB+ (2008.11)	BBB (2006. 8)

□ 2008~09년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 2007년까지 주요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으나, 2008년 10월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차입 규모가 큰 동유럽 지역 국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S&P와 Fitch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 '09년 4월 OECD도 루마니아의 등급을 한단계(3→4) 하향 조정하였음.

- S&P('08.10월)는 등급 하락 사유로 민간부문 해외 차입에 기반을 둔 내수 과열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점과 총선 관련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를 더욱 고조시킨 정책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Fitch('08.11월)도 금융시장에 대한 잘못된 거시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우려를 표명하였음.
-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09.4월)에서는 루마니아의 통화가치 하락, 외채구조의 악화 등과 더불어 IMF구제금융에 따른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며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었음.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제한적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민간부문 외화차입 증가로 인한 외채잔액 증가세 지속

- 2005년 자본거래 완전 자유화 이후 민간부문의 외화차입이 급증하여 2006년 이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이 130%를 초과하였으며 2009년에는 219%에 달함.
- 루마니아의 GDP 대비 공적채무 규모는 2008년 14.7%, 2009년 21.6%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헝가리나 우크라이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됨.

### □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부담 완화

- 2009년초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의 투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루마니아의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었으나 2월을 저점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 D.S.R.이 2008년말 24.5%에서 2009년말 현재 27.0%로 상승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 총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임.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이후 채무 구조 개선과 외환보유액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0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 외채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단기외채: 총지원잔액 4.7억 달러(연체잔액 0.7%, 310만 달러)

·중장기외채: 총지원잔액 27.5억 달러(연체잔액 0.3%, 760만 달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대 루마니아 교역규모 및 직접투자 감소

○ 우리나라와 루마니아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기준 5억 4,2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1~3분기 실적 이 51.5만 달러에 그쳐 전년<sup>9)</sup>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09년 9월말 기준 해외직접투자 총 누계는 총23건, 3억 9,879만 달러규모임.

<표 4> 한·루마니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루마니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854,813	720,587	387,133	자동차및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합성수지
수 입	79,349	207,091	154,941	기계요소, 의류, 철강판, 동제품, 신발
합 계	934,162	927,678	542,07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협력 방안 모색

○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와 루마니아 경제부는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에 열린 제 4차 산업협력

9) 2008년 중에는 1억 3,924달러의 투자 실적을 보임.

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이 양국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부문임에 동의하고, 한국 기업이 루마니아 원자력 발전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음. 또한 루마니아는 자동차, 정보통신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함.

## V. 종합 의견

- 루마니아는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시행, 신용증가로 내수가 과열되고,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누적이 지속되던 중 2008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수출 및 신규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2009년 3월 IMF 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추가적인 위기 확산은 억제하였으나, 2009년 4월 개최된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 루마니아의 IMF 지원조건 이행여부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한단계 하향조정됨.
- 2008년 12월 사회민주당, 민주자유당의 좌우파 연합정부가 붕괴되고 민주자유당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을 얻어 2009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정부 부재 사태가 발생함. 현재는 기존 민주자유당 총리인 보크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상태이나, 사회당 자유당 등 주요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 불안이 상존함.

조사역 고안나(☎02-3779-5654)

E-mail: [anna@koreaexim.go.kr](mailto:anna@koreaexim.go.kr)